

일상 속 성평등 라운드테이블 「담장넘어」

□ 행사개요

- 일 시 : 2022. 11. 18.(금) 16:00~18:00
- 장 소 : 복사골문화센터 2층 갤러리
- 주요내용 : 성평등한 부천을 위한 의제발굴, 자유토론 등

□ 진행순서

구 분	소요(분)	주 요 내 용
15:40~16:00	20	○ 접수 및 등록
16:00~16:10	10	○ 여는 마당 사회 : 오세향(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장/담장넘어 네트워크) - 개 회 - 함께하는 공연 '나답게' 신실(나는엄마도서관 대표) - 내빈소개 및 일정안내
16:10~17:10	60	좌장 : 오세향(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장/담장넘어 네트워크) ○ 발표 : 1. 일상 속 성평등 실현을 위한 담장넘어 활동보고 1 권은숙(정치하는엄마들/담장넘어 네트워크) 2. 일상 속 성평등 실현을 위한 담장넘어 활동보고 2 신가영(까치밥/담장넘어 네트워크) 3. 성평등한 학교로 최윤(부천청소년인권공동체 세움) 4. 성교육은 어른이 먼저 이태경(부천중앙초등학교 양육자 성교육동아리 '상상이성')
17:10~17:50	40	○ 성평등한 부천을 위한 현장 자유토론
17:50~18:00	10	○ 정리발언 및 마무리 - 기념사진 촬영 등 향후계획 안내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만큼 언어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일상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언어가
성차별적이라면.....

**적극적으로 바꿔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같이 고민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결성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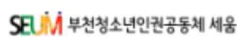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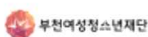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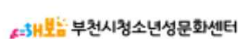
'담장넘어' 네트워크를 소개합니다.



'여자목소리가 담장을 넘으면 안 된다'는
속담을 비판하고, 여성들의 목소리가 담을 넘어
마을에 울려 퍼져야 성평등하게 변화한다는 뜻!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일상속의 성평등을 방해하는
담장들을 함께 '넘어'보자는 취지로 정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나요?

일상속 성평등 언어 사용을 위한 "성평등 사전" 만들기!
공공기관 홍보물이 성평등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제안하며, 그 외 성평등 정책제안 등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담장넘어 네트워크 활동 보고(1)

권은숙(정치하는엄마들/담장넘어 네트워크)

2022 일상 속 성평등 라운드테이블 「담장넘어」



활동공유(1)

목 차

01. 성평등 홍보물 체크리스트
02. 직장내 성평등 문화 확산 캠페인
03. 공공기관 홍보물 · 표식 모니터링 활동 및 개선 제안
04. 지방선거 정책제안 활동

01.

성평등 홍보물 체크리스트

담장넘어 네트워크에서 제안하는
"성평등 홍보물 제작을 위한 체크리스트"

	제출 내용	예	비고
① 외모, 옷차림, 다양성	이성인 주로 접근객일 경우, 남성은 주로 후원객일 것을 알린다?		
	이성인 주로 차이를 알고 있다?		
	여성들 남성이자 여성 그리고 알면 안?		
	여성인 남성이자 여성을 부가하지 않나? 성별이 다른 것을 알고 있는가?		
	여성인 남성이자 여성을 부가하지 않나? 성별이 다른 것을 알고 있는가?		
	여성인 남성이자 여성을 부가하지 않나? 성별이 다른 것을 알고 있는가?		
	여성인 남성이자 여성을 부가하지 않나? 성별이 다른 것을 알고 있는가?		
	여성인 남성이자 여성을 부가하지 않나? 성별이 다른 것을 알고 있는가?		
	여성인 남성이자 여성을 부가하지 않나? 성별이 다른 것을 알고 있는가?		
	여성인 남성이자 여성을 부가하지 않나? 성별이 다른 것을 알고 있는가?		
② 성역할	여성인 남성이자 여성을 부가하지 않나? 성별이 다른 것을 알고 있는가?		
	여성인 남성이자 여성을 부가하지 않나? 성별이 다른 것을 알고 있는가?		
	여성인 남성이자 여성을 부가하지 않나? 성별이 다른 것을 알고 있는가?		
	여성인 남성이자 여성을 부가하지 않나? 성별이 다른 것을 알고 있는가?		
	여성인 남성이자 여성을 부가하지 않나? 성별이 다른 것을 알고 있는가?		
	여성인 남성이자 여성을 부가하지 않나? 성별이 다른 것을 알고 있는가?		
	여성인 남성이자 여성을 부가하지 않나? 성별이 다른 것을 알고 있는가?		
	여성인 남성이자 여성을 부가하지 않나? 성별이 다른 것을 알고 있는가?		
	여성인 남성이자 여성을 부가하지 않나? 성별이 다른 것을 알고 있는가?		
	여성인 남성이자 여성을 부가하지 않나? 성별이 다른 것을 알고 있는가?		
③ 언어	여성인 남성이자 여성을 부가하지 않나? 성별이 다른 것을 알고 있는가?		
	여성인 남성이자 여성을 부가하지 않나? 성별이 다른 것을 알고 있는가?		
	여성인 남성이자 여성을 부가하지 않나? 성별이 다른 것을 알고 있는가?		
	여성인 남성이자 여성을 부가하지 않나? 성별이 다른 것을 알고 있는가?		
	여성인 남성이자 여성을 부가하지 않나? 성별이 다른 것을 알고 있는가?		
	여성인 남성이자 여성을 부가하지 않나? 성별이 다른 것을 알고 있는가?		
	여성인 남성이자 여성을 부가하지 않나? 성별이 다른 것을 알고 있는가?		
	여성인 남성이자 여성을 부가하지 않나? 성별이 다른 것을 알고 있는가?		
	여성인 남성이자 여성을 부가하지 않나? 성별이 다른 것을 알고 있는가?		
	여성인 남성이자 여성을 부가하지 않나? 성별이 다른 것을 알고 있는가?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함께 만든 '성인지 홍보물 가이드'를 바탕으로 좀 더 쉽고 간결하게 만들었습니다.

성평등 홍보물 체크리스트

- 누구나 쉽게 점검 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함께 만든
성인지 홍보물 가이드를 바탕으로
[담장넘어네트워크]에서 좀 더 쉽고 간결하게 만들

- 항목 구분

- ① 외모, 옷차림, 다양성
 - ② 성역할
 - ③ 언어
- 세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점검내용을 기재

성평등 홍보물 체크리스트

	세부 내용	예	아니오
① 외모, 옷차림 다양성	여성은 주로 핑크계열 옷을, 남성은 주로 파랑계열 옷을 입었나?		
	여성은 주로 치마를 입고 있나?		
	여성을 남성보다 작게 그리고 있진 않나?		
	여성의 날씬한 몸매를 부각시키거나, 선정적인 옷을 입고 있는가?		
	여성의 머리는 길게, 남성의 머리는 짧게만 표현되어 있는가?		
	안경은 남성만 끼고 있는가?		
	특정한 성만 표현되어 있는가? (성비불균형)		
	남성에 비해 여성이 과하게 꾸민 모습으로 묘사되는가?(과한 화장, 의상 등)		
	여성: 약하고 수동적, 소심한 태도로 / 남성: 강인하고, 능동적이고 용맹하고, 대범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가?		
	다양한 모습의 등장인물이 표현되었는가? (성별, 장애, 인종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표현되었는가?(1인가구, 조손가구, 한부모 가구 등)		

1. 외모, 옷차림, 다양성

- 옷의 색깔로 성별구분, 신체의 크기, 몸매구분, 꾸밈 강조, 성격으로 성별 표현 유무
- 다양한 등장인물, 가족형태가 표현되었는가

성평등 홍보물 체크리스트

② 성역할	여성만 가사일을 하는 모습으로 그려졌는가?		
	여성만 육아 및 돌봄노동을 하는 모습으로 그려졌는가?		
	남성만 경제적 부양자로 표현되었는가?		
	비서, 간호사, 콜센터 직원, 도우미 등 직업군이 여성으로만 표현되었는가?		
	의사, 변호사, 과학자, 운동선수, 판사 등 직업군이 남성으로만 표현되었는가?		
	여성은 집안일, 남성은 경제활동인으로 묘사되는가?		
	안전시설 점검, 건축 현장 등 성별 비중이 한 성별로만 표현되었는가?		
③ 언어	여성은 존댓말을 남성은 반말을 하고 있진 않은가?		
	어른은 반말, 청소년은 존댓말을 하는가?		
	여성은 친절, 남성은 권위적인 언어를 사용하는가?		
	수다는 여성, 중요 내용은 남성의 언어로 그려졌는가?		
	성별을 구분하는 언어가 있는가?(여○○, ○○녀, ○○남)		

2. 성역할

- 가사, 육아, 돌봄 노동의 모습을 여성으로만 나타내는가
- 직업으로 성별을 나누어 표현했는가
- 남성만을 경제활동인으로 묘사되는가

3. 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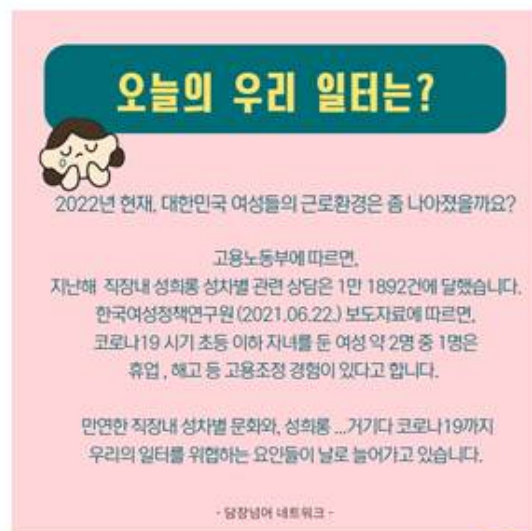
- 여성은 존댓말, 남성은 반말
- 청소년은 존댓말, 어른은 반말
- 성별을 구분하는 언어 사용

02.

직장내 성평등 문화확산 캠페인



3.8 세계여성의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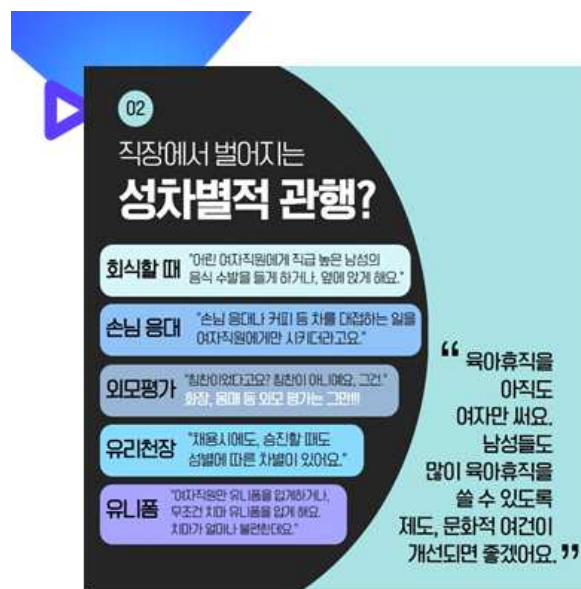
대한민국 여성들의 노동환경



직장내 성차별 시민 의견 조사



성차별적 언어



성차별적 관행



일상속 차별에 대한 의견



성평등한 일터가
보편적 일터가
되는 날까지

담장넘어

#여직원 대신 직원 #미스김말고이름을 #응원합니다
#직장에서는서로존댓말 또는 서로반말 #외모애기노노

03.
공공기관 홍보물 · 표식
모니터링 활동 및
개선제안

연번	장 소 명	내 용	지 역
1	오정어울마당	공간 내 비치 리플렛(오정보건소)	오정동
2		엘리베이터 시트지(1층)	
3	도당어울마당	입구 현수막	도당동
4	부천시청	청사 내 비치 배너	중동
5		청사 내 화장실 시설이용관련	
6		1층 로비 공간설치물 관련	
7		1층 출입구 이용 관련	
8	소사청소년센터	계단 홍보물 관련(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괴안동
9	부천시민학습원	화장실 표식	성곡동
10		계단 표식 관련	
11	원미벌마루	2층 화장실 안내표식	원미동
12		작은도서관 이용 안내 홍보물	
13	복사골문화센터	1~4층 계단 부착 홍보물(부천시오정보건소)	상동
14		비상계단 포함	
15		부천시여성회관 수유실 표식	
16		1층 부천시립동화도서관 내 표식(안내, 수유실)	
17	별빛마루도서관	지하 1층, 6층 화장실 표식	육길동
		1층 아동도서관 내 수유실	

부천시내 공공기관 청사 비치 홍보물 · 안내표식 모니터링

8개 청사, 17건 개선 제안

[화장실 안내 표식, 계단 내 부착 홍보물,
수유실 안내 표식, 공간설치물 등]

오정어울마당



⇒ 성을 구분 짓지 않는 인물로 표현, 여성의사 인물

도당어울마당



⇒ 성구별 없는 픽토그램을 활용한 성평등한 홍보물

오정어울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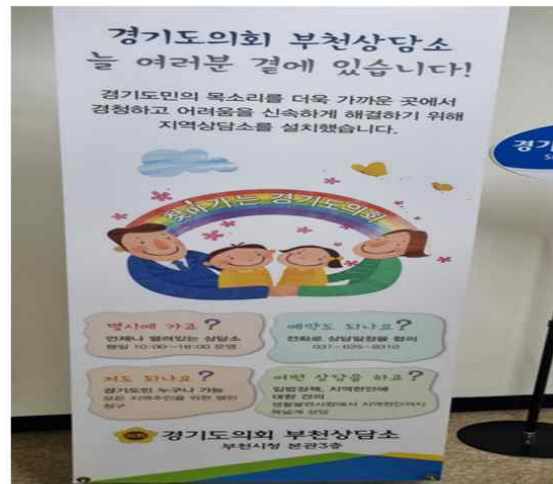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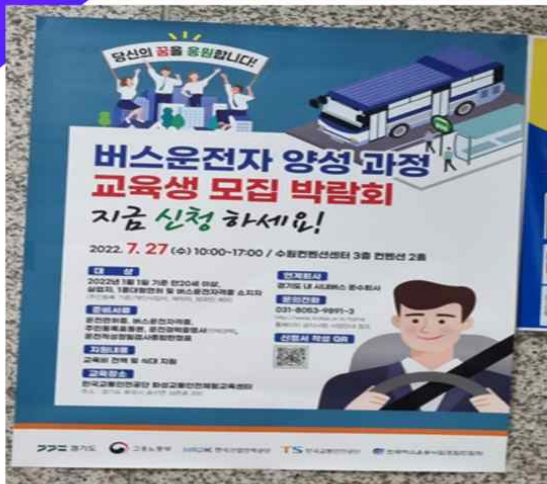
⇒ 인물의 체형과 체격을 성별에 관계없이 다양하게 표현하는 노력 필요

도당어울마당, 복사골문화센터



성별에 상관없이 계단 이용의
장점, 건강에 대한 정보만 제공

부천시청



⇒ 성별이 구분되지 않는 운전자,
또는 여성 운전자도 표현

⇒ 다양한 가족형태를
표현하는 이미지 사용

부천시청, 소사청소년센터



장애인, 비장애인, 유아동을 동반한 양육자 등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장애인화장실 권고사항인 샤워기 설치 필요)

부천시민학습원, 소사청소년센터



성별 고정관념 없는 픽토그램(청소년 제작)
다양한 이용자가 이용하는 공간임을 고려하여 한글도 함께 표시

소사청소년센터



⇒ 다양한 색상, 착용소품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성을 구분 짓지 않을 필요 있음.

복사골문화센터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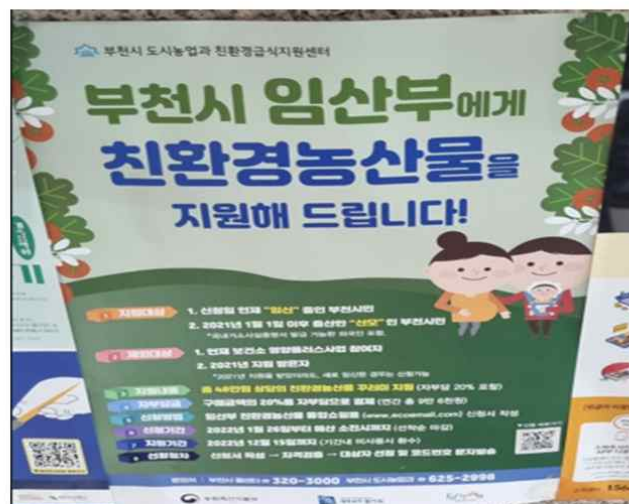
다양한 양육자를 고려한 성 중립적인 픽토그램, 글자로 표시

복사골문화센터(부천시립동화도서관)



➡ 양육자가 남성, 여성 고르게 표현, 또는 성별구분 없는 그림으로 교체하여 독서활동이나 양육에 성역할을 강화되지 않을 필요가 있음.
어린이가 주체적으로 독서활동을 하는 모습 필요.

부천시청



보육의 주체가 여성과 남성임이 표현된
성평등한 홍보물

국민신문고, 아동인권모니터링 개선 제안 활동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회신의견)
➡ 모유수유 권장 홍보를 할 때 문구상 불편함이 없도록 세밀하게 검토하고, 가족수유실 등의 취지를 감안한 이용자 친화적 수유시설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부천시 홍보담당관)
부천시 홍보물 제작 시
성별 고정관념이 드러나는
표현을 지양하고,
제작 배포할 때
성평등 체크리스등을
적용하도록 하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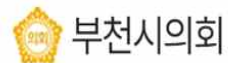
➡ (해당 학교 회신 의견)
한 아이만 한쪽 눈을 감았다고 예쁜 표정이라고 볼 수 없음.
'여자는 예쁜 표정을 지어야 한다' 는 사고를 유발한다 예는 객관적이지 않음.
남성과 여성을 대표하는 파란색, 붉은색을 금지하는 것도 비교육적이라 사료됨.
보는 이로 하여금 불편함을 초래한다면 교체시기가 도래할 시 동물이나, 사람이 없는 그림으로 교체할 예정임

04. 지방선거 정책 제안활동

경기도 교육감
후보

부천시장 후보

부천시의회 의원
후보



경기도 교육감 후보 정책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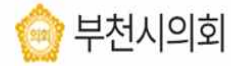
1. 학교 화장실 유기농 생리대 비치
2. 성평등 체크리스트에 준거한 표식 부착
3. 남학생 탈의실 마련
4. 성별에 따른 스포츠 분리
5. 보호자의 학교활동 참여, 성별구분 없애기
6. 전문인력에 의한 성교육 실행

부천시 시장 후보 정책제안



1. 일상속 성평등 실현을 위한 체계 마련
 - 공공기관 홍보물 표식조사, 컨트롤타워 지정
 - 공공영역 "성평등 홍보물 제작 체크리스트 적용 의무화 등
2. 모든 시민이 차별없이 공존하는 부천시
 - 사회적 소수자 대표성 확보 노력
 - 젠더관점 장애인 이용시설 개선
 - 학교 화장실 내 유기농생리대 비치
 - 여성고용형태 차별없는 돌봄교실 제공

부천시 시의원 후보 정책제안



1. 안전한 부천을 위한 1인가구 지원조례 제정
2. [성별임금격차 해소] 조례제정 및 성평등 공시제
3. 돌봄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돌봄제공

감사합니다.

2022 일상 속 성평등 라운드테이블 「담장넘어」

담장넘어 네트워크 활동보고(2)

신가영(까치밥/담장넘어 네트워크)



담장넘어 활동 공유(2)

열두 달 성평등

목 차

01. 성인지예산 모니터링 활동공유
02. 초등교과서 모니터링 활동공유



성인지 예산 모니터링 활동 공유

성인지 예산 제도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 지원 받도록 하는 제도

부천시 성인지예산
모니터링단 교육 스타트!

부천시 성인지예산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단이 함께 점검해 봐요!

어서와 성인지예산은 처음(두번째)이지?



1. 사업 일정 안내

기간 2022. 6월 ~ 10월 대상 모니터링단 등 장소 배움실 등

- | | | | |
|--------------------------|----------------------|------------------|------------|
| 1
6-7월
모니터링단
교육 | 2
모니터링
워크숍, 활동 | 3
모니터링
컨설팅 | 4
결과공유회 |
|--------------------------|----------------------|------------------|------------|

성인지예산 추진체계, 예산 등 모니터링 활동을 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이 진행됩니다. (교육일정 별도 공지)

활하는 과정을 고르고, 워크숍을 통해 학습하고, 모니터링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조별컨설팅 예정)

성인지예산 전문인력인 자문단 통해 교육 및 컨설팅을 받고,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조별컨설팅 예정)

모니터링단 활동의 성과를 지역민에게도 공유하여 확산하고, 예산 등 도출된 향후 모니터링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시민의 눈으로 분석하고, 제안해요!



1. 모니터링단 교육



기간

2022년 6월 24일 ~ 9월 8일 (총 6회)



1차시

성평등과 성인지 예산의 관계 이해

2차시

지방재정체계와 성인지예산서의 흐름

3차시

성인지예산서의 대상과제 선정

4차시

성인지예산서의 구조와 작성

5차시

성인지예산서 모니터링 방법 및 방향

6차시

성인지예산서 체크리스트 활용방법

2.

모니터링단 활동



기간

2022년 9월 9일 ~ 9월 30일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대상사업	가. 권	부천시청	회계연도	2022
	실·국	복지위생국	실·과	통합통풍과
	사업명	올라온 지역사회보장복지 활성화 지원		
모니터링단	성 평	신가영	작성일	2022.10.07
유형 구분(종목세로 가능)				채워 유무
유형1	역성별 대상으로 하는 사업			☐
유형2	성별분리가 가능한 사업			☒
유형3	차별기류에 의해 수혜가 결정되는 사업			☐
유형4	각급 여성 정책 사업			☐
유형5	경제 및 기타 정책 사업			☐
유형6	시설 건축 및 관리 사업			☐
유형7	행사 홍보성 사업			☐
연번	상견제대상사업 항목	점검 내용		이행 여부
1-1	사업목적	사업목적의 실현내용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있게 조성하였는가?		예 ■ 아니오 □
1-2	사업내용	주요사업의 추진경과가 실현되었는가?		예 ■ 아니오 □
1-3	사업내용	사업내용이 사업별 특성제 및 지역 정책적으로 반영되었는가?		예 ■ 아니오 □
1-4	예산지출 예산사업	예산지출 예산사업은 전담기구의 사업 구분에 따라 반영되었는가?		예 ■ 아니오 □
1-5	소요자원	소요자원의 예산액이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담로 예산예산에서 적절하게 증감되었는가?		예 ■ 아니오 □
1-6	모니터링 의견	작성할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3개 국 / 12개 과

문화경제국,
복지위생국,
교육사업단



23개 사업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청년정책 활성화,
부천시제판타스틱 영화제 등

연번	성인지예산서 항목	점검 내용	이행 여부
3-1	성별격차 원인분석	성별격차 원인분석이 작성되었는가?	예 ☐ 아니오 ☐
3-2		성별 수혜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되었는가?	예 ☐ 아니오 ☐
3-3		성별 수혜분석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 사업의 유형 특성에 맞게 작성되었는가?	예 ☐ 아니오 ☐
3-4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경제적 신체적 차이로 인한 격차를 충실하게 분석하였는가?	예 ☐ 아니오 ☐
3-5		가시적 내재적 차별요소를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성평등한 결과를 도출하였는가?	예 ☐ 아니오 ☐
3-6	모니터링 의견		
4-1	성과목표	성과목표(지표)와 실적 및 목표치가 작성되었는가?	예 ☐ 아니오 ☐
4-2		성과목표가 추상적인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되었는가?	예 ☐ 아니오 ☐
4-3		성별 수혜분석과 성별격차 원인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성과목표가 설정되었는가?	예 ☐ 아니오 ☐
4-4		성평등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목표가 설정되었는가?	예 ☐ 아니오 ☐
4-5		신술근거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는가?	예 ☐ 아니오 ☐
4-6	모니터링 의견		
5-1	성평등 기대효과	성평등 기대효과가 작성되었는가?	예 ☐ 아니오 ☐
5-2		차별요소의 제거, 성별수혜의 변화 등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중심으로 작성되었는가?	예 ☐ 아니오 ☐
5-3		실제 수혜자의 직간접적인 개인적 효과와 지역사회 정책 효과가 적절히 작성되었는가?	예 ☐ 아니오 ☐

- 사업 대상자
- 사업 수혜자
- 예산구분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등

3. 모니터링 컨설팅



날짜

2022년 10월 14일



4. 결과 공유

○ 모니터링 내용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가 다른 경우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37,251	37,378	37,470
여 성	14,653(39.3%)	14,700(39.3%)	14,801(39.5%)
남 성	22,598(60.7%)	22,678(60.7%)	22,669(60.5%)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1,552	1,675	1,745
여 성	543(35%)	619(37%)	641(36.7%)
남 성	1,009(65%)	1,056(63%)	1,104(63.3%)

※ 활동지원사

숫자가 틀린 경우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 소요자원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80	255	25	9.91%
예산총계	280	255	25	9.91%
광역보조금	84	77	8	9.91%
자체재원	196	179	18	9.91%

성과목표를 50:50으로 맞추려는 경우

□ 성별격차 원인분석

- 남녀 특성적인 차이로 여성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
-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다른 사람과 교류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이 높은 반면, 남성은 그보다 덜한 사유로 분석

□ 성과목표

성과목표(성과지표)	2020년 실적	2021년 추정치	2022년 목표치
청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여성 참여율 증가 (여성 참여율)	77%	63%	50%

※사업 참여 결과

□ 성평등 기대효과

성인지 감수성 높은 교육을 통한 성평등 의식 제고

성별분리통계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5,063	5,858	6,311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부천시에서 활동하고, 평생학습센터에 등록된 7인 이상 학습동아리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493	0	443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민간경상보조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동아리 수 /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미선정

평등언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성과목표

성과목표(성과지표)	2020년 실적	2021년 추정치	2022년 목표치
어릴 때부터 책과 친해질 수 있는 문화 조성 (북스타트 책꾸러미 배부)	4,484명	2,300명	2,300명
어릴 때부터 책과 친해질 수 있는 문화 조성 (북스타트 프로그램 참여자)	0명	205명	175명

* 예산편성에 따른 책꾸러미 물품 구입수, 프로그램 운영횟수 고려 / 2020년 북스타트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미운영

□ 성평등 기대효과

북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시 부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개발 등 남녀 모두 적극적으로 아이 양육에 참여하여 아이에게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 확립을 도울 수 있음.

성별격차원인분석에 따른 성과목표와 성평등기대효과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 성별격차 원인분석

- 문화 해설의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이나, 과거 외부활동 대부분을 남성이 주로 했기에 위인의 대다수가 남성이며 이에 남성 위인 해설 비중이 큰 폭을 차지함
- 향후 여성 위인에 대해서도 적극 발굴하여 해설을 할 예정임

□ 성과목표

성과목표(성과지표)	2020년 실적	2021년 추정치	2022년 목표치
문화관광해설 시행 횟수 증가 (문화관광해설 시행 횟수)	812회	840회	900회

□ 성평등 기대효과

여성 위인 발굴 및 해설에 따른 성평등 인식 제고

4. 결과 공유



 모니터링단 의견

 전문가 의견

모니터링단 의견(1)

모든 예산이 중요하고 쓰임새를 모니터링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있었지만, 성인지예산을 모니터링 하다 보니 그 중요성을 더 체감하게 됩니다.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예산은 필요한 곳에 적절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예산이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야할 것 같습니다.

보다 성평등하고 모두가 존중 받는 부천을 기대합니다.

모니터링단 의견(2)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는 공무원들 대상 성인지예산 작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서 문구들 보면 너무 영혼이 없어서]

더불어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를 함께 보면서 예산서를 작성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 의견

1. 부천시 공무원들 대상 성인지예산 컨설팅 필요
2.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한 체계 마련
 - 주무부서, 예산부서, 모니터링단, 부천시의회원이 함께 모니터링에 대해 논의하는 구조 마련 필요
3. 부천시 성인지예산 관련 조례 마련



초등 교과서 모니터링 활동공유

1. 모니터링 추진배경

추진배경



- 2021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실제 사용하는 영유아 교재 100여권 모니터링
- 문제의식을 느낌
- 초등교과서 모니터링 진행

2. 활동 내용



활동 내용

01.

교과서(2021)

- 10개 출판사
- 6개 학년
- 14개 과목
- 총 106권

02.

모니터링 기간

- 4월 ~ 8월

성평등 모니터링

과목/학년/ 출판사/페이지		
내용 ☐ 성불평등 ☐ 성평등		
이유/ 대안		
과목/학년/ 출판사/페이지		
내용 ☐ 성불평등 ☐ 성평등		
이유/ 대안		
과목/학년/ 출판사/페이지		
내용 ☐ 성불평등 ☐ 성평등		
이유/ 대안		

03.

체크리스트 제작

- 과목, 학년, 출판사, 페이지
- 내용 : 성불평등/ 성평등
- 이유 / 대안
- 이미지

04.

모니터링 결과(성불평등)



가을
1~2학년
교육부

- 녹색어머니, 돕는 누나, 나눔장터아주머니는 성별을 표현/ 집배원,환경미화원, 소방관,버스기사등은 성별을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보편적 존재(남성)를 상징



국어
1~2학년
교육부

- 소방관아저씨보다는 소방관이라는 보편적 명칭사용해야. 소방관이 2명이니 성별구별 없이 그려야.



실과
5~6학년
미래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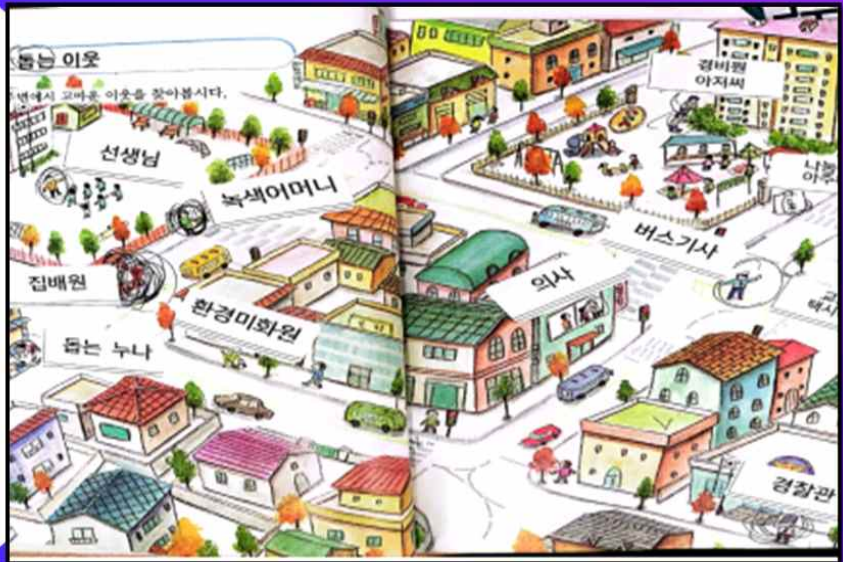
- 정상가족의 이미지 사용



통일시민
5~6학년
경기도교육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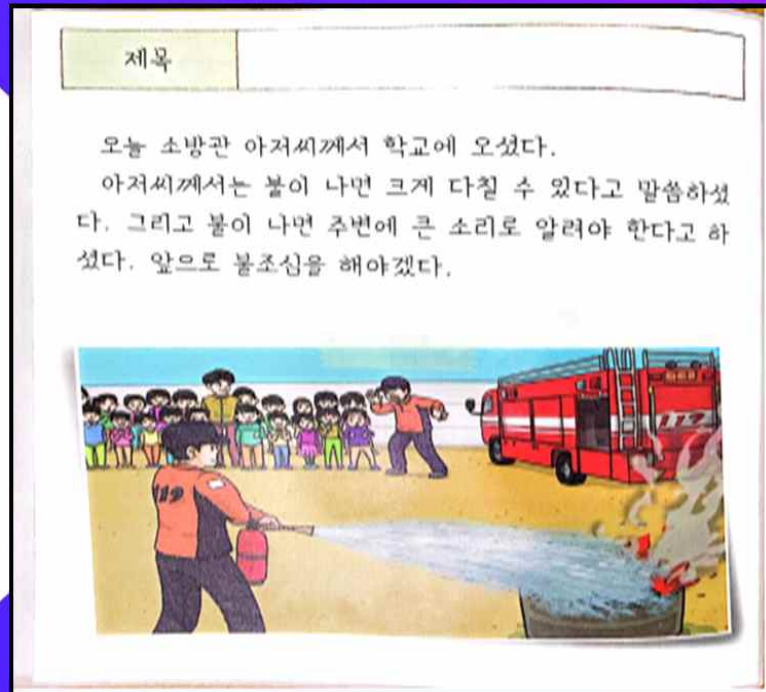
- 남과 북의 사람들 모두 여성은 치마를 남성은 바지를 착용

성별표현과
보편적 존재(남성) 상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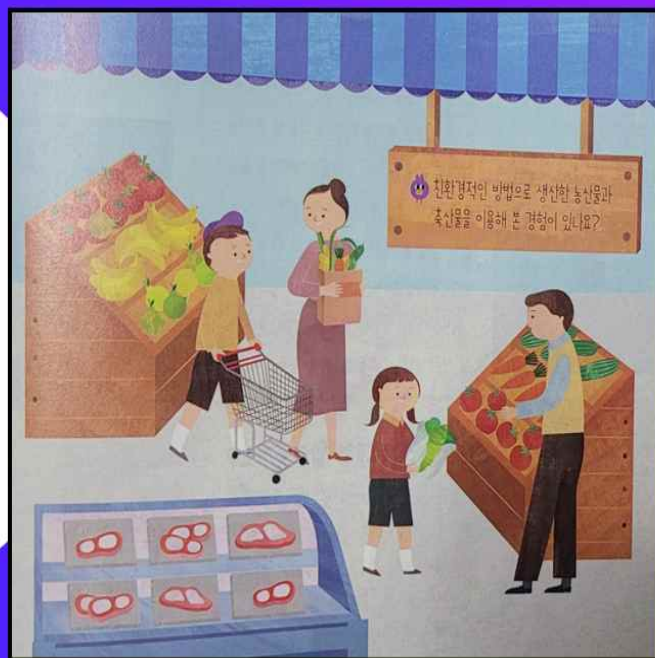
보편적 명칭

성별 구별없는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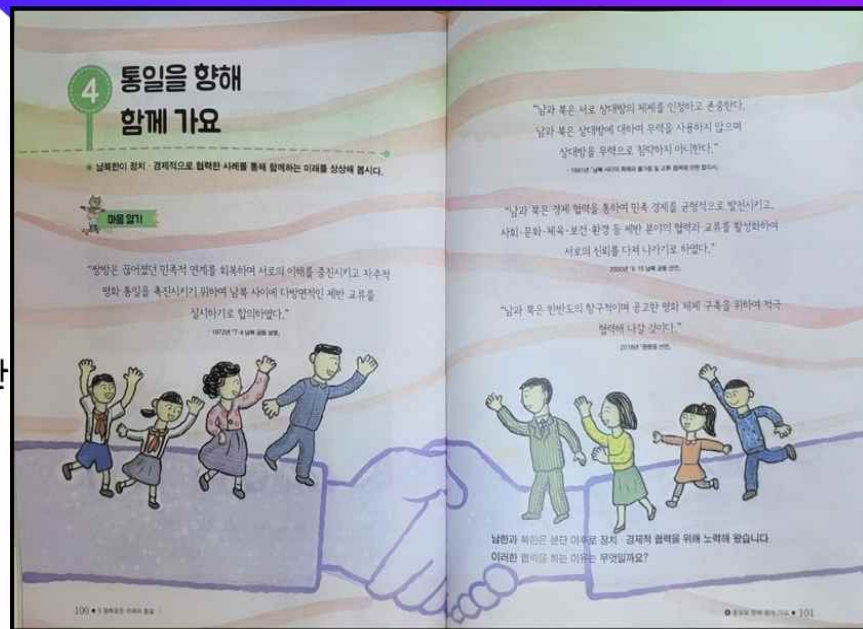


정상가족 프레임을

적용한 이미지 사용



남북한 모두
여성은 치마를
남성은 바지를 착용한
이미지 사용



04. 모니터링 결과(성평등)



사회
3~4학년
교육부

- 다양한 가족 형태 표현



국어
5~6학년
교육부

- 인종 및 신체의 다양한 모습 표현



체육
3학년
지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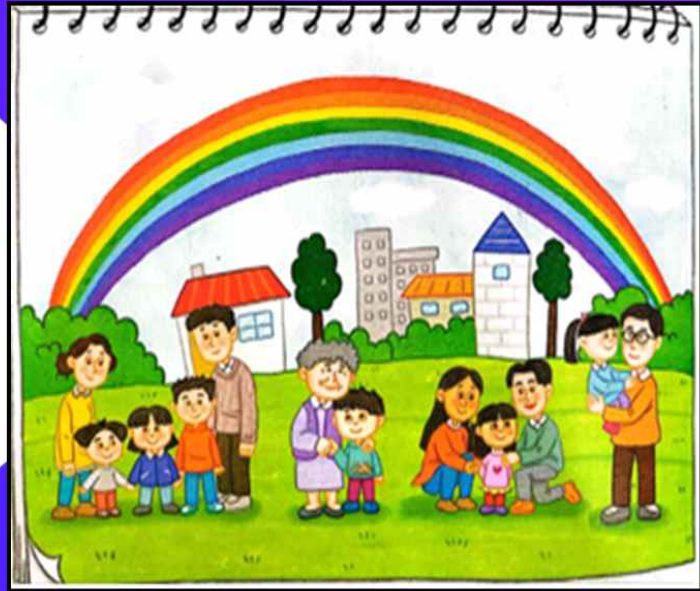
- 체육 활동이 장애아 부와 관계가 없음을 표현



수학
3~4학년
교육부

- 장보기의 역할과 직업 등 편견 없는 평등 이미지 사용

다양한 가족 형태 표현



다양한 인종 다양한 신체의 모습



체육 활동이
장애여부와 관계가
없음을 표현



장보기의 역할과 직업 등
편견 없는 평등 이미지 사용



3. 담장넘어 제안사항

제안사항

01. 참여

- 교과서 선정 시 학생, 학부모, 외부 전문가가 필수적으로 참여 가능하도록 제도화

02. 체크리스트

- 교과서 선정 시 성평등 체크리스트 활용
(성비, 언어, 지역, 성역할 등)

Thanks !

열 두 달 성평등

성평등한 학교로

최윤(부천청소년인권공동체 세움)

성평등한 학교로

최윤(부천청소년인권공동체 세움)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청소년인권공동체 세움에서 활동 중인 최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성평등한 부천을 만들기 위해 열린 담장넘어 포럼에서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경험한 성차별 사례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움에서는 지난 8월 20일 성평등 교육을 진행했으며 활동 프로그램으로 ‘경계선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이 활동은 일상에서 타인으로부터 ‘나’라는 영역의 경계를 침범당했던 경험을 나누는 것으로, 가정과 학교, 길거리,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겪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이중 학교에서 겪은 경계선 침범의 사례에는 주로 교사로부터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차별적인 인식이 드러나는 언어표현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공유하고, 이것이 왜 문제이며 이런 성차별적인 문화를 바꾸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번호	시기 및 장소	사례 요약
1	2019년 A중학교	남학생 탈의실은 층마다 있지만 여학생 탈의실이 따로 없음
2	2019년 A중학교	(여자탈의실이 없어서)여학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중에 남학생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남성 담임선생님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들어오고, 담요를 두르고 옷을 갈아입는 학생에게 오히려 “왜 옷을 저렇게 갈아입는 거야”라고 했을 때 수치심이 들었다.
3	2019년 A중학교	수업시간 중 자신의 특기를 말하는 시간에서 한 여학생이 청소와 요리라고 발표하고 박수와 함께 끝나려는데 선생님 “○○이는 커서 현모양처가 되겠네. 좋은 여성의 표본이

2022 일상 속 성평등 라운드테이블 「담장넘어」

		네~” 이상한 말이었지만 모두 여느 때와 같이 넘어갔다.
4	2022년 C중학교	무상교복이지만 여학생 교복에서 치마가 아닌 바지를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여학생 교복에 지나치게 라인이 들어가서 하복의 경우 팔을 들면 배꼽이 보일 것만 같이 활동이 불편하다.
5	2022년 B고등학교	비혼주의자 학생들에게 일상적으로 가정과 자식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기본값으로 이야기함
6	2022년 B고등학교	수학과목 교사가 문과 비하, 인하대 성폭력 사망사건을 두고 여학생이 잘못된 거라고 발언함. 당시 이과인 우리 반에 교사의 발언이 퍼질 정도로 학생들이 놀라고 충격받음.
7	2022년 D중학교	특별활동 선택 때 남학생과 여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성별로 정해져 있어서 선택권이 침해받는 문제(이후 학부모 민원으로 해결됨)
8	2021년 E중학교	식사 도중에 성소수자 이야기가 나왔는데 선생님이 "밥맛 떨어지게 게이 얘기는 왜 하나"라며 많은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당연하다는 듯이 동성애에 대한 비난을 했다. 이를 불편해하는 학생들도 많았지만 선생님은 보란 듯이 계속 동성애를 까내렸다. "우리학교 여중이라 레즈비언 많으려나? 근데 왜 난 한번도 본적 없지? 이 학교에만 4년째인데 말이야." 학생들은 뒤에서 레즈비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성차별적이기 때문에 커밍아웃하지 않은 것 뿐이라고 친구들과 수군댔다.

사례1번과 2번은 해결방안으로 당시 학생회장이 공약으로 여자 탈의실 만드는 것을 내걸었지만 본관 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해 보여서 오히려 비난 여론이 많았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탈의실 사용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3번과 5번 사례는 청소가 요리가 특기인 게 왜 좋은 여성의 표본이 되는 건지, 언제부터 그렇게 정해진 건지 궁금합니다. 그럼 좋은 남성의 표본은 또 무엇일까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성역할을 성별로 나누고 구분짓는 말을 한두번 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반복했다는 점

니다.

4번사례의 경우 많은 학교들이 여학생 교복은 치마를 선택하는 것이 기본이고 바지는 비용을 따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기본값을 내가 원하는대로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은 학교가 여학생들의 교복선택권을 박탈한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상교복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여학생 교복의 경우에 블라우스는 라인이 잡혀 있어서 팔만 조금 올려도 어깨가 조여서 터질 듯합니다. 저는 어깨가 너무 안 맞아서 한 사이즈 큰 블라우스를 선택했는데 그 마저도 어깨선이 제 어깨를 넘지 못합니다. 왜 여학생 교복에 지나친 라인이 들어가는 것인지 의문이고 개선이 필요합니다.

6번 사례는 이과인 제가 있는 반까지 그 이야기가 퍼질 정도로 당시 학생들에게는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어떻게 저런 비인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교사가 되었는지 너무 놀랐습니다.

7번 사례의 경우 특별활동은 학생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인데, 성별로 특별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선택권’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애초에 남자‘만’ 할 수 있는 활동과 여자‘만’ 할 수 있는 활동이 정해진 게 아니지 않나요? 만약 정해진 거라고 한다면 그건 사람들의 사회적 고정관념이 정한 것이겠죠.

8번 사례는 왜 동성애 애기가 밥맛을 떨어지게 하는 애기인지 궁금합니다. 여기 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동성애든 이성애든 다 똑같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데 유독 동성애라는 말을 꺼내면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 친구들과 1지망으로 여고를 쓰면서 한 친구가 “여고니까 레즈가 과연 있을까”라는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친구와 제가 “있으면 그냥 있는 거지”라고 말하고 바로 다른 주제로 넘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이 부천시민들에게 요구합니다.

세움은 올해 초 대선을 앞두고 청소년 권리찾기 6대 요구에서 “성평등

2022 일상 속 성평등 라운드테이블 「담장넘어」

교육 실시 및 스쿨미투 해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청소년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해주었는데요, 나아가 학교와 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선 성차별적인 학교를 바꾸기 위해서는 교사도 성평등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학생들만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평등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정작 성차별을 많이 하는 건 선생님들이고,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학생 대상 성평등 교육도 15분짜리 영상 한 편 보여주는 형식적인 방식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전문 강사님을 모셔서 교육을 받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고, 교육 방식도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학생들도 참여하고,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스쿨미투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부천에서는 스쿨미투 운동이 대대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이걸 부천 학교에 성차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제기를 해도 학교 안에 들어줄 사람이 없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찌보면 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학교와 사회가 직접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겪은 성차별에 관한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성교육은 어른이 먼저

이태경(부천중앙초등학교 양육자 성교육동아리 '상상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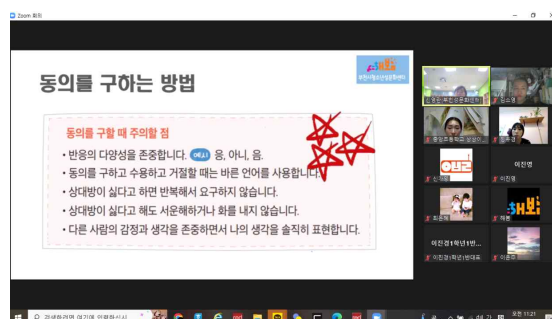
2022 일상 속 성평등 라운드테이블 「담장넘어」

성교육은 어른이 먼저

이태경(부천중앙초등학교 양육자 성교육동아리 ‘상상이성’)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중앙초등학교 양육자 성교육동아리 ‘상상이성’의 이태경입니다. ‘상상이성’은 2021년 부천중앙초등학교 학부모 성교육 연수를 듣고 이후로도 함께 모여서 공부해보고자 자발적으로 모인 10명의 양육자가 ‘성교육’에 대해 공부하는 동아리입니다. 각자의 일이 있어 매번 10명의 인원이 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2주에 한 번은 꼭 모여 공부를 합니다.

처음에는 성교육 연수 후 느낀 점들과 더 배우고 싶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들을 스스로 알아보자 하여 쉬운 그림책을 구입하여 읽으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소녀와 소년, 멋진 사람이 되는 법’(저자 윤은주 | 그림 이해정 | 사계절 | 2019.9.20.)을 시작으로 기초부터 배워간다는 생각으로 책을 선정하여 20여 권의 책을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을 통해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되어 저희가 궁금한 내용들을 추리고 강사님을 섭외하여 ‘양육자가 알아야 할 자녀의 성교육, 성인지감수성’, ‘디지털성폭력’, ‘포괄적 성교육’, ‘경계·존중·동의’, ‘우정 그리고 연애’ 이렇게 총 5회의 강의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공부를 통해 모든 사람은 존중되어야 하며 예의와 존중의 경계선을 알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그동안 우리 어른들이 동의에 대해 무지했음을 반성하게 되고 아이라도 동의하에 스킨십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에 담기도 어색하고 부끄럽기만 했던 애매모호한 성교육을 뿌리부터 올곧게 제대로 알아가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초경과 몽정을 어찌 설명해야 할지 모르던 저희가 이제는 ‘성인지 감수성’과 ‘포괄적 성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이의 성교육은 당연히 학교에서 해주려니 하고 무관심했던 저희가 이제는 부천시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찾아가 이것저것 궁금한 것들을 묻습니다. 월경을 부끄러워하고 월경대를 숨기던 저희가 이제는 가족과 월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성’은 드러내 이야기할수록 아이들도 건강하게 접근하여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방문>

저희의 자녀 중 한 남자아이는 여성의 월경이 소변처럼 참을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하루에 몇 번 월경을 하느냐고 묻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 동아리원들과 공유하고 혹시 다른 아이들도 모를 수 있으니 남자아이들에게도 월경에 대한 성교육을 하여 월경을 하는 친구를 배려해야 함을

가르쳐주었습니다

학교 교육에만 의존하고 ‘성교육’을 가정에서 하리라고는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이전과는 다르게 아이와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을지 틈을 찾습니다.

얼마 전 모임에서는 ‘상상이성’활동 전과 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최은혜님께서서는 동아리활동을 통해 배우고 알게 된 성교육 정보로 다른 학부모들과 성교육 대화 시 도움 줄 수 있어서 보람 느끼고 아이들 양육할 때 도움이 되며 나도 몰랐던 내 몸에 대해 알게 되어 나를 더 아끼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정유경님께서서는 아이가 TV에서 뽀뽀하는 장면을 보고 더럽다고 하였는데 강의나 책을 통해 배운 내용으로 아이와 대화를 하여 성에 대한 바른 인식 전환에 도움 되었고 한두 번에 그치지 않고 여러 번 강의 듣고 책을 읽고 토의, 토론 등 지속적인 활동을 하니 세 아이 양육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김소영님께서서는 여러 기관 성교육 프로그램은 1회성에 그치는 강의였으나 우리 동아리는 공모사업을 통해 우리가 듣고 싶은 성교육 강의 내용을 주제별로 나누어 직접 정하여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지금 이루어지는 학교 성교육에서 부족한 점을 인지하지 못했으나 성교육을 강의를 듣고 책을 읽어 공부하니 보건 선생님이 해주시는 학교 성교육만으로는 부족함을 알게되어 “전문 강사를 통한 성교육 수업의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학교에 설득하고 의견을 내게 되어서 뿌듯했다고 하셨습니다.

강선경님께서서는 인터넷의 정보나 지인들의 경험을 가이드로 아이들의 교육에 접근할 때 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에 의하므로 확신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말하게 되었고 똑같은 상황이라도 여러 학부모님들과의 대화/토론을 통해 다양한 측면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융통성을 키울 수 있었으며, 성교육 도서를 집안에 두니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림도 보

고, 글도 읽게 되어 아이에게 다소 어색할 수 있는 상황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남편의 no라는 대답이 감정적인 거절로 느껴져서 기분이 상한 적이 있었는데, 상대방의 no를 그냥 no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서로가 대화할 때 편견을 갖지 않고 들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의 조언은 너무 쉽고 가볍게 느껴지곤 합니다. 동아리 교육과 독서를 통해 배운 것들을 전제로 두고 남편과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면 수용성이 더 높아진다는 게 확실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진영님께서서는 성교육이라고 하면 숨기게 되고 어렵다고 생각하였는데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니 인식이 변화되어 좋았고 우리 때 교육으로는 나와 다른 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아들들에게 성기나 신체의 기능, 특징 등에 대해 설명하기 부족함을 느꼈었는데 동아리 활동으로 강의와 책을 읽고 배워서 아들들에게 자세히 눈높이에 맞게 자세히 설명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디어에 포옹이나 키스 장면이 나오면 아이들과 같이 보면서 “저건 뭐 하는 거지?”, “어떤 장면일까?”, “넌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등 아이들과 자연스러운 스킨십과 동의 부분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성은 조심스럽고 불편하다고 느꼈으나 동아리 활동을 통해 대화하고 공부하니 접근하기 편하게 성교육에 도움이 되었고 공통된 관심을 가진 양육자들이 모여 또래 아이들을 양육하는 과정을 대화하고 여러 주제로 토의, 토론하여 아이 양육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나만 힘들게 아니구나 하는 위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는 학교 내에서 교사-학생-양육자 성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명초등학교를 부러워했었습니다. 사실 부럽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육자와 학생, 교사와 학생 이렇게 따로가 아닌 교육의 3주체가 함께 의논하고 고민하고 공부하는 그런 ‘성교육’이 필요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초등학교는 이러한 움직임은 없지만, 저희 ‘상상이성’이 계속 학교의 문을 두드리다 보면 열리지 않을까 기대

2022 일상 속 성평등 라운드테이블 「담장넘어」
를 해봅니다.

아직 저희는 배우고 공부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해나갈 생각입니다. 저희의 이런 움직임이 중앙초등학교에서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교육은 아이들만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먼저 받아야 합니다. 어른이 적극적으로 성교육을 받고 공부하면 우리의 아이들이 건강한 성문화와 더욱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 믿습니다.

MEMO

[illegible]

2022 일상 속 성평등 라운드테이블 「담장넘어」

- ◇ 발행일 2022년 11월
- ◇ 발행처 부천여성청소년재단 www.bwyf.or.kr
- ◇ 주 소 경기도 부천시 장말로 107,(상동) 복사골문화센터 5층
- ◇ 문의처 T.032-322-0700 F.032-322-0720